

CAF

Center for Ambitious Failure

KAISTian Story - 공모전 수상작

*Just KAISTian Things :
A Collection of My Experience*

Maida Aizaz (KAIST 전산학부)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힘든 것이다.
내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은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고,
개개인에게 맞는 속도에 따라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피치 못하게 빨리,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때마저도 그렇게 살 이유는 없지 않은가?

괜히 철학적인 얘기를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인생은 성공 혹은 배움을 주는 일련의 경험들'이라는 말로 이 에세이를 시작하려 한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하다. 실패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나 이는 말하기는 쉽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라 생각한다. 좌절이 배움의 기회라는 사실을 온전히 체화하는 것은 실제로 한 평생의 여정이다.

내 이름은 Maida이고 갓 스물한 살이 되었다. 파키스탄 사람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랐으며 현재 카이스트 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나의 실패에 관해 얘기하기 전에 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선 소개하도록 하겠다. 나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매우 평범하고 특화되지 않은 학교에서 교육받았다. 이런 학교의 특징은 성적과 학업 성취가 노력과 비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가적인 학업 부담이나 또래들 간의 숨 막히는 학업 경쟁이 없다. 따라서 나는 IGCSE와 A 레벨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졸업할 때까지 학급에서 1등 자리를 유지했다. 내 곁에는 좋은 친구들과 그 이상으로 더 좋으신 선생님들, 그리고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있었다. A 레벨 과목으로 영어영문학, 물리학, 화학과 수학을 선택했으며 물리학의 장황한 문제들과 외우기 어려운 공식들이라는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우들에게 미안하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다) 사소한 불편함을 제외하고서는 행복했고 잘 지내왔다. 잘 배우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며 인생은 아름다웠다.

대학교, 그것도 KAIST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학교 지원 과정은 괜찮았다. 에세이를 쓰고 상담을 받아야 했는데, 둘 다 내가 잘하는 것들이기에 문제가 없었다. 스웨덴, 한국, 영국, 그리고 모국 파키스탄,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보는 시간 1년을 가진 뒤 드디어 카이스트에 진학하기로 했다. 카이스트는 사실 영국의 높은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를 생각한 예비책이었다. 케이팝, 화장품,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서만 알던 낯선 나라와 문화 속으로 모험을 시작한다는 기대에 부풀어 올라 있었다. 당시 한국어 수준도 초급 이상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대체로 순조로울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코로나가 등장했고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들어야 했다.

나를 키워주다시피 한 학교의 울타리에서 나와 치열한 경쟁과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어렵기만 한 현실 세계로 내던져졌다. 나의 성장 배경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나는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좌절하고 끝없이 추락하고 말았다. 수업은 어려웠으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았다. 엄청난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성과가 없었다. 내가 하고자 했던 전공인 컴퓨터 과학의 가장 기본 과목인 CS101에서 F 학점을 받았다. 정신 건강이 바닥을 쳤다. 대부분 시간을 방 안에 갇혀 소득 없이 공부했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6시간 시차 때문에 밤에 수업을 듣느라 잠도 자지 못했다. 내 이름 Maida가 실패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된 것 같았고 나 자신이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져 다시는 건져 낼 수 없는 바위가 된 기분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기분을 어느 정도 느껴본 적 있는 학우들이 많을 것이다. 이전의 나는 어떤 종류의 실패도 경험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분은 너무나 낯선 것이었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나는 식욕, 운동할 의지, CS 전공을 계속할 의욕 등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 카이스트 생활은 2학기째로 접어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집에 있었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만 쌓여갔다. 나의 학점은 낮았고, 자신감은 그보다 더 낮아져 있었다. 가족과 친구만이 내 암울한 삶의 유일한 밝은 구석이었다.

무엇보다도 학업적 실패가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같이 느끼게 했다. 엄청난 학점과 그보다도 더 빛나는 학업적 이해도를 지닌 학우들을 볼 때면 내 것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듯한, 이미 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CS 전공을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는 패배감을 더 크게 만들었다. 전공에 관심은 있었지만, 막상 전공 지식을 공부하면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지금 와서 어떻게 그만둘 수 있지? 나의 꿈은 어떻게 되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할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 내가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어두운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곤 했다. 카이스트에서 아예 자퇴하는 것까지도 생각했다. 교과서를 읽고 미적분학과 선형대수에 대한 비디오를 보면서 밤을 지새워도 이해를 하지 못한 밤이 너무 많았다. 이 악순환은 끔찍하고 끝이 없었다. 무한 루프에 갇혀 희망도 없는 것 같았다.

다행히도 친구들과 가족의 도움으로 기운을 낼 수 있었다. 한국에 오니 시차의 큰 문제가 해결돼서 조금은 머리가 맑아졌다. 카이스트 스트레스 클리닉에 다니기 시작했고 이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새기게 됐다. 특히 카이스트처럼 경쟁이 치열한 곳에는 우리가 막 배우기 시작하는 것들을 수년간 이미 배워온 특화된 학업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부터 그들과 같은 기준에 맞춰가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공평하지 않다. 나도 인간일 뿐이고, 사람은 모두 각자 인생을 사는 페이스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 더 적합한 속도에 맞춰가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다. 누가 옳고 누군 잘못된 것이 아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나는 뜻하지 않게 빠지게 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꼭 CS 전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떠오르는 분야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 관심 분야에는 카이스트 학부에서 배우는 순수 CS보다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HCI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과 관련된 전공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산업 디자인 수업을 몇 개 들었고 CS보다 더 적성에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년의 Maida는 이 또한 실패로 생각했겠지만 오늘의 Maida는 이것이 성장이며 자신에 대해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힘든 것이다. 내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은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고, 개개인에게 맞는 속도에 따라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피치 못하게 빨리,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때마저도 그렇게 살 이유는 없지 않은가?

나는 21살밖에 되지 않았으며 아직 보지 못하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들이 많다- 사랑, 기쁨, 슬픔 모두다. 그러나 나는 예전보다 나 자신과 내 존재에 대해 더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나의 실패가 사실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까닭이다.

결국 서두에 말했던 것을 되새기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성공을 하거나 몰랐던 것을 배우게 된다. 이를 더 일찍 깨달을수록 더 낫다고 굳게 믿는다. 우리 모두 좋은 일یدن 나쁜 일یدن 모든 것에서 배움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자신에게 약속했으면 한다.